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4. 2. 16.(금) 11:00 < 2.17.(토) 조간 > 배포 2024. 2. 16.(금)

우즈벡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 지원사업 추진 동력 이어가

- 우즈벡 세계무역기구(WTO) 가입지원 고위급 회담 및 한-우 시장접근 양자 협상 동반 진행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는 2.14(수)~16(금) 우즈베키스탄(이하 '우즈벡') 대통령실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 및 대표단 방한 계기에, 우즈벡의 WTO 가입*을 지원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, 한-우 시장접근 양자 협상을 진행하였다. 이번 방문은 지난 12월 우리 대표단의 우즈벡 타쉬켄트 현지 방문('23.12.13)에 이은 답방형식으로 두 달여 만에 성사되었다.

* WTO 가입을 위해서는 다자차원의 가입작업반 보고서 채택과 회원국 내 관심 국가 간 양자차원의 시장접근 협상 타결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와 양자 절차 진행 중

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와의 별도 고위급 회담에서 우즈벡 WTO 가입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*를 확인하는 한편, 시장접근 양자 협상에 대한 우리 측 관심사항을 전달하고 한-우 경제협력 현황과 협력 분야 확대 방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
* 우리나라는 '04년부터 WTO 가입 다자회의체인 "우즈벡 WTO 가입작업반" 의장직을 지속 수임 중(현재는 주(駐) 제네바 대사가 역임 중)

아울러 산업부는 시장접근 양자 협상 및 공동자문위원회*를 통해 우즈벡의 WTO 가입 절차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도 병행한 바, 양자협상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금번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의 방한이 지난 '22년부터 진행된 한-우 시장접근 협상 진전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, 우즈벡 WTO 가입 지원사업을 통해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관계**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.

* 양국 정상 간 합의('17.11)에 따라 '18년부터 추진되어 온 우즈벡 WTO 가입 지원사업(자문, 교육, 연구 등)을 총괄하는 기구(韓: 최석영 前 주 제네바 대사, 우: 우루노프 WTO 특별대표)로서, 금번의 경우 우측 특별대표 방문 계기 수석대표간 면담형식으로 개최

**'19.4월 우리나라는 우즈벡과의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'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'로 격상

담당 부서	다자통상법무관 다자통상과	책임자	과 장	김파라 (044-203-5930)
		담당자	사무관	윤가영 (044-203-5936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